

안전제일 롯데월드

취재 / 이상건 <홍보부 대리>

쇼핑, 관광, 스포츠, 레저, 문화행사관람. 이 모든 것을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계획된 롯데월드가 대역사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이미 호텔과 백화점, 쇼핑몰, 스포츠센터 등은 개관되어 동양의 명물로 등장했고, 모험과 신비를 주제로 한 전천후 실내공원 테마파크는 최종점검 단계에 있다.

이번 호에는 4만4천여평의 대지 위에 연면적 17만5천여평, 하루 최대이용객 50만명을 자랑하는 롯데월드단지를 소개한다.

• 개요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40-1에 위치한 롯데월드는 단일규모로는 동양 최대로서 석촌호수와 연계되는 대단위 위락시설을 갖춘 종합관광유통단지이다.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건물이

고층화·대형화·복합다기능화됨에 따라 무엇보다 강조된 점이 안전제일, 쾌적한 공간, 신속한 정보체계로서 이 분야에 특히 많은 노력과 투자가 집중됐다고 한다.

열병합발전방식인 5900kw 용량의 발전기 6대, 총 90톤의 수관식 보일러, 총 12,100USRT의 냉동·냉방설비, 170대의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8000회선의 교환설비, 이외에도 각종 공조 및 편의시설이 컴퓨터와 연결되어 어떠한 상황에서서도 즉각 대응토록 운영된다. 따라서 롯데월드 하루 에너지사용량이 웬만한 도시의 하루사용량과 맞먹을 정도인 규모를 시공,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 걸친 첨단기술, 정밀시공과 아울러 철저한 원가절감, 최단의 공사기간 등이 지원되었다.

• 방재시설 현황

하루 최대이용객 50만명, 수천억

원의 투자비와 수조억원에 달하는 각종 상품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재설비는 꿈의 섬유라 불리우는 광케이블을 이용, 16CORE 다중 MODE의 LAN시스템설비로서 쓰미네트2400컴퓨터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6개소의 중앙감시실로 구분된 방재시스템은 제반설비의 작동현황을 알려주는 수신기와 LED로 점등시켜 작동상태를 보여주는 그래픽판넬, Light pen을 이용하여 필요부분의 상황을 볼 수 있는 CRT DISPLAY, 작동상태를 기록하는 프린터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단지내 방재시설을 살펴보면 초기소화기(5천여개), 스프링클러설비(전층), 옥내·외소화전(8백31개소), 할론소화설비(용기: 3백70개), 8백34회로의 자동화재탐지설비(감지기: 1만3천여개)외에 각종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를 구비하여 조기감지와 초기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유사시 피난 대피를 위해 비상방송설비, 비상조명설비, 피난유도등, 방배연설비를 전층에 설치, 패닉현상에 의한 피난장애를 없앴다. 이들 시설의 설치기준은 국내외 관련 법규외에도 방재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한 피난계획안을 건축시 반영하였다고 한다.

건 물 현 황

건 물 명	층 수 (지상/지하)	면적(m ²)	용 도
호텔롯데월드	33 / 3	94,727	호텔, 회의장, 연회장, 나이트클럽
롯데백화점	12 / 3	112,430	판매장, 식당가, 문화교실 등
쇼핑몰	4 / 3	67,328	판매장, 대중식당가, 상가거리
새나라슈퍼	6 / 3	33,720	판매장, 예식장, 연회장
스포츠센터	9 / 3	40,992	헬스클럽, 수영장, 볼링장, 의원
테마파크	9 / 3	159,441	실내공원, 실내스케이트장
지하주차장	/	53,088	주차장



● 방화관리조직 및 운영

공사기간중 건설본부에 소속되어 있던 방재과를 지난 5월 방재부로 승격시켜 6개 단지별로 분산된 방재시설팀을 총괄운영토록 개편했다.

지금까지는 완벽한 시공만을 최우선이라 여겨왔으나 이젠 시공에 덧붙여 시설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해가는 체제로 바뀐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부분적으로 실시하던 각종 방재교육과 훈련, 시설의 개보수 업무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개관 직후 최고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관서와 종합시범훈련을 통해 단지내 전 방재관련시설을 가동시켜 가상 화재사고에 대응하는 조기감지, 대피, 진압, 복구훈련을 실시한 결과 시설운영 및 조직면에서 합격평정을 받았다고 한다.

다만 일부 업장의 직원에게서 만족할 만한 교육의 성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있었으나 아직 정리단계임으로 걱정할 문제는 없다면서 각 영업부서에서 느끼는 공통된 위험요인으로 화재를 지적하고 있어 가장 짜임새있는 화재예방 활동이 이루어 질 것을 확신하는 김석주방재과장에게서 자신감이 넘쳐보인다.

김과장은 『우리도 이제는 기업경영의 차원에서 무엇이 우선적으로 준비되어야 하고 지원되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성장위주에서 한걸음 나아가 내실을 다지고 이미 확대 재생산된 재산을 지키는 일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장 다음의 재난은 아무 의미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인명안전이 최우선이지만요. 이것이 저희 회장님의 지론이기도 합니다』라고 롯데월드 방재업무의 기본 철학을 소개한다.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윤창규계장은 『저희는 값비싼 첨단시설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방재시설팀과 방재실 운영팀, 청원소방관으로 편성된 24시간 순찰근무조, 소방차를 보유한 소방대, 2인1조의 2분대기조, 각 영업장별 자위소방대 등 각기 전문성과 업무특성을 살린 방화조직을 운영하고 있어 각 팀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숙련도를 높이는 것이 교육의 방향이 되고있다』면서 각기 임무에 대한 책임의식이 철저하여 유사시 대처 능력이 어느 직장 못지 않다고 한다.

또한 협회업무에 대해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시까지 지속적인 기술자문을 받아왔고, 시공후 안전 점검시 철저한 점검을 해주어 가장 신뢰할 검사기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점검과 보험업무를 같이 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에서도 여러가지로 도움이 되었으며, 각종 화재예방 교육교재와 계몽영화를 무료로 제공하여 주기 때문에 방화관리업무에 무척 도움이 되고 있다』고 김과장은 감사를 표한다.

방화관리업무 종사자 만이 수행할 것이라 하고 짐작해 왔고 실제로 미비하게 수행되어온 방재관련업무도 이젠 내 생활의 터전을 보호한다는 참여의식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시점이다. 모두가 화재예방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할 때 자칫 형식적인 활동으로 변하기 쉬운 방화관리를 앞으로는 보다 실질적으로 생활화 시켜가야 할 것이며 재난없는 복지사회를 실현시키기 위해선 바로 예상하지 못할 위험에 대한 근본적 대처방법을 최대한 마련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